Entertainment p/18

'아름다운 악역' 강동원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28일 월요일 제302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류현진 '거물' 피비 맞대결

물총 열기 느껴봐! 27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제 2회 신촌 물총 축제'에서 참가자들과 소방관이 함께 물총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 결단 리더십에 달렸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정 열심히 하면 기회 올 것"… 맞춤형 복지 추진도

"도정을 충실히 잘 하면 대권 도전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는 최근 메트로신문과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모든 일에 숨김이 없는 그의 솔직한 면모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관련기사 7면>

홍 지사는 차기 대선의 키포인트로 '결단의 리더십'을 꼽았다. 그가 최근 제시한 2기 도정이 대선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답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자리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 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경남지사로 도정을 잘 이끌고 성과에 대해서 도민과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는 평가를 해주시면 대권의 기회도 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리더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결국 리더십과 함께 시대 정신의 문제인데,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시대 정신이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도정을 열심히 하는 것이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했다.

홍 지사는 최근 2기 도정의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민생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안전한 경남'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깨끗한 경남' ▲문화와 복지환경이 어우러진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도청 서부청사 개청,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뤄진 '낙후한 서부지역 대개발'과 경남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4년 내 마무리해 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남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면적은 경남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인구는 22%, GRDP는 17%에 불과한 서부 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홍 지사는 대단위 개발계획과 함께 서민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선택적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희망울타리 지킴이, 홀로사는 어르신 5~10인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숙식 장소 지원, 시력 찾아주기,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의 흐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대권을 향한 2기 도정의 스타트는 이미 성공적으로 끊었다. 미국 폭스사와 호주의 빌리지 로드쇼 등과 함께 경남 진해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2기 도정의 성공이 그의 대권 가도에 어떤 힘이 돼 줄지 관심을 모은다.

/[illegible] hy@metroseoul.co.kr

분당 전세금 평균 3억600만원 1위

전국에서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평균 3억600만원을 기록한 경기도 분당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평균 2억원에 육박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7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등을 발표했다.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전세권설정등기된 전세금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평균 1억95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1억1700만원), 대구(1억1300만원), 경기(1억1200만원), 울산(1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가 64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상북도(7100만원), 인천(7600만원)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상세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전세금이 3억원을 넘은 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3억600만원)와 서울 강남구(3억400만원) 2곳이었다.

서울 송파구(2억9400만원), 서초구(2억6900만원), 성동구(2억2900만원), 양천구(2억1700만원), 광진구(2억1000만원), 중구(1억9700만원), 종로구(1억8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부산 해운대구(1억7200만원)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전세금 상위 16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분기 부동산 소유권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71만8346건이었고 외국인 3425건, 재외국민 888건 등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취득건수는 전체의 0.4%인 3138건이었고 70세 이상이 4만753건으로 5.7%를 차지했다.

/[illegible]

재보선 새누리 6·새정치연합 3곳 '우세' 주장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 초반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공천 갈등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여유있는 모습이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야야 후보간 치열한 접전으로 흐름이 변하자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며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의 경우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긴장하는 분위기이지만 줄곧 압도적 우위를 보여온 나경원 후보의 대세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원을(권선) 역시 정미경 후보가 탄탄한 지역 기반을 토대로 선전하고 있고, 충북 충주도 사람 출신인 이종배 후보가 '지역일꾼'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기에다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경기 김포, '안방'인 부산 해운대·기장갑과 울산 남을까지 총 6곳에서 여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정현 후보의 선전에 순천·곡성 지역을 '우세'가 아닌 '박빙 우세'로 조심스럽게 분류했다. 호남 4곳 중 나머지 3곳인 광주 광산을, 전남 나주·화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3곳에서는 자당 후보들의 무난한 승리를 자신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유대균·박수경 구속영장

유씨, 청해진해운 35억 포함 99억 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27일 5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한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가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균씨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 수법으로 99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청해진해운에 대해 횡령·배임을 저지른 금액은 35억원이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이르면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범죄 방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양회정(56)씨와 '김엄마' 김명숙(59)씨에게 이달 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다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인사나누고 돌아서는 노회찬·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오른쪽)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달마사에서 만나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서울교육청, 내년 2월6일자로 교사 전보발령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2월 중순에 실시해오던 2015학년도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전보 발령을 앞당겨 2015년 2월 6일자로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보 시기를 앞당기면 학교에서도 담임 배정, 시간표 작성, 업무 분담 등 신학년도를 대비한 학교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 한강다리 투신 자살 매년 증가세

서울시의 투신 자살 방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한강 다리 위에서 강으로 투신하는 자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강대교 자살 발생 건수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한강 다리 자살 현황을 보면 2012년이 27건, 2013년 40건이다.

북, 황해도 장산곶서 동해로 미사일 발사

북한이 26일 오후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을 동해 상으로 다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9시40분에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500km 안팎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황 내달 16일 광화문광장서 시복미사

경복궁 등 고궁 관람 제한

다음달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교황 프란치스코의 집전으로 한국천주교 순교자 124위의 시복미사가 열린다.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이 성인 이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일부 고궁 관람이 일시 제한된다.

경복궁, 덕수궁,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장객을 받지 않는다. 관람은 오후 2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정다훈기자

여야 세월호 증인 협상 결렬

여야가 다음달 4일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을 위해 27일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사고 초기 구조 및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증인들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증인 채택하는 문제에서는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8일 오전에 다시 만나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의를 벌였으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는 28일 서로 진전된 안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인 뒤 타결되면 곧바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명단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영등포구 구민상 추천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가 오는 8월18일까지 '제21회 영등포구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구민상은 총 10개 부문에서 15명을 선정한다. 최종 수상자는 구민상심사위원회에서 서류와 현장 심사, 공적사실 심의 등을 통해 9월28일 시상할 계획이다.

노원구, 기초연금 74억 지급

서울시 노원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 연금 74억4200만원을 25일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은 4만839명이며 평균 지급액은 18만2250원이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관악구 장애인 지과 진료실

서울시 관악구는 일반 치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낙곡 보건분소에 '장애인 치과 진료실'을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진료 대상은 구의 등록 장애인과 관내 복지시설 등 이용 등록 장애인이다.

오늘은 중복 중복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한 소비자가 포장된 생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외고·국제고 교과운영 조사

교육부 이달말까지 전국 38곳 점검 "이과·의대반 운영시 지정취소 될수도"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 31개 외국어고와 7개 국제고 등 3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와 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정규교육과정에서 이과 과목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정규교육과정에 이과반, 의대 준비반 운영여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이과 수업 개설 현황 ▲입시설명회 등을 통한 이과반 운영 예정 홍보 여부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은 시·도교육청별로 담당 장학사 7~9명이 해당학교 현장을 방문해 서류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교육과정 편법 운영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 시 학생정원 감축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학교 포상과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도 제외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외고에서 이과반이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결과를 받아본 후 취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환수 전 새시화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언제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부하자 이 전 대표는 소송을 냈다.

/윤다혜기자

성년 남녀 '지훈·유진' 가장 많다

신생아는 서준·서연

올해 성년이 된 남자 중에서 '지훈', 여자 중에서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성년을 맞는 1995년 출생자 가운데 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는 279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현이라는 이름이 2422명, 현수 2253명, 준열 1826명, 재현 1746명으로 뒤를 이었다.

1995년생 여자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4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지 4199명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지은(4140명), 4위 지현(3748명), 5위는 지원(3370명) 순이었다.

최근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남자 아이는 '서준', 여자 아이는 '서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다혜기자

김종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통일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공단 서울지역본부 중구지사를 방문해 일선지사장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면 의료관련 IT 및 보건의료 관련 산업이 뒤따를 것이고 병원 수출, 의료장비 수출, 의약품 수출 등으로 건강보험의 새로운 한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글로벌화 등을 위해 "우선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성공요인을 밝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해야한다"며 "그 다음으로 우리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한계인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보험혜택을 적용받으면서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되는 비상식적인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25일 공단 서울지역본부 중구지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 제공

지하철 기관사 체험 신청하세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30일까지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기관사 체험행사 참가신청을 받는다.

체험행사는 다음달 14일과 9월 13·27일에 열리며 참가희망자는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인재개발원과 8개 승무사업소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서울메트로 제공

참가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156명이 선정되며 추첨결과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기관사 업무 등을 체험하게 된다. /윤다혜기자 ydh@

히딩크 풋살구장 개장

덕성여대와 거스 히딩크 재단은 최근 교내에서 '제12호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구장' 개장식과 시범경기를 개최했다.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구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축구장. 거스 히딩크 재단이 지난해 이 대학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덕성여대가 부지를, 재단이 자금을 지원해 조성됐다.

성신여대, IDEA 은상

성신여대는 융합디자인 석사과정의 김미현·정주연·박인혜·박완주 학생팀이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디자인공모전 'IDEA'에서 학생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 '세이프티 애니멀 밴드'는 '멍게바는 보호 아데'에 코끼리 형상을 활용했다.

과자에 사카린 넣어도 된다

식약처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허용범위 넓혀

그동안 유해물질로 알려져 왔던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과자·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사카린 첨가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초콜릿류를 비롯해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기존에 젓갈·김치 이 외에 시리얼·뻥튀기·껌·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사용 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과 캔디류는 0.5g 이하 등이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물질이라는 인식이 커졌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햄버거, 빵류 등 즉석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그동안 유해논란이 있었던 사카린의 사용 허용 범위를 빵·과자·아이스크림 등으로 확대한다. /메트로신문 사진DB

그러나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됐다. 캐나다의 사카린 쥐 실험이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후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나라도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었다.

/정영일기자 [email illegible]@metroseoul.co.kr

강물 위 달리다 사라지는 백마

metro Russia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밤중 네바 강 위를 달리는 '백마'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백마는 미국 비디오아트 작가 안드레아 스타니스라프의 작품으로 비디오 스크린을 이용해 백마의 모습을 나타냈다.

스타니스라프는 "보트 위에 스크린을 설치해 만들었으며, 백마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네바강 백마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마가 매일 밤 11시 30분에 나타나 새벽 6시가 되면 사라진다"며 "강에서 백마가 뛰어나왔다며 놀라는 사람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최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트센터 관계자는 "말은 러시아 문화에서 친숙한 동물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말을 모티브로 한 동상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주제를 말로 선택했다"며 "특히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며 고결함과 우아함의 상징인 백마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가 솔가로차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럼즈펠드는 도마뱀?

위키피디아 '내맘대로 편집' 논란… 미 연방하원 컴퓨터 접근 제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최근 이 사전에 미국 국방장관은 어린이를 잡아먹는 외계 도마뱀, 달착륙은 쿠바의 작품 등 황당한 내용이 등장해 논란이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은 미국 연방하원과 연관이 있는 컴퓨터의 접근을 최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내맘대로 편집을 한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가 미국 연방하원 컴퓨터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인적사항에는 '럼즈펠드는 멕시코 어린이를 잡아먹는 외계 도마뱀 출신'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암살한 것으로 알려진 리 하비 오스왈드의 배후에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정부가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미국 아폴로 11호 우주선의 1969년 7월20일 달착륙은 쿠바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고 편집됐다.

기자에 자유를! 26일(현지시간) 그리스 아르세유에서 시민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번 조치에 연방하원 관계자들은 "한두 사람의 소행으로 보이는 일로 연방하원에서 일하는 9000여 명의 위키피디아 접근을 모두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익명으로 접어해 내용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 제단 측은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與民同樂>

"여민동락 자세로 당당한 경남시대 열 것"

[인터뷰]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로운 각오와 강한 리더쉽을 내세우며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섬기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당당한 경남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경남 미래 50년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민선 6기 경남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2기 도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경남 미래 50년'과 '서부지역 대개발'이다. 경남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기계 산업과 조선 산업으로 40년을 먹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한계에 직면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18개 시·군별 성장 잠재력에 맞는 40개 전략 사업을 발굴해 경남이 50년간 먹고 살 산업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다. 핵심인 5+1 전략 사업 중 항공 우주·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 산단은 지난 3월 정부에서 국가 지원 특화 산단으로 선정돼 임기내 조성을 마무리 할 것이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6월20일 미국 LA에서 FOX사와 MOU를 체결한데 이어 7월16일 서울에서 FOX·코주 빌리지 로드쇼와 3자 MOU를 체결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4년내 마무리하고 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남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다. 면적은 경남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 비해 인구는 22%, GRDP는 17%에 불과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부 대개발을 추진한다.

항공우주산업과 항노화 산업은 서부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도청 서부 청사를 조기에 건립하고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을 서부권으로 이전할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 산업 인프라의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부산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항공·해양플랜트, 나노테크, 항노화 산업 등 원국가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등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중의 핵심 사업이다.

진해 경제자유구역내 웅동지구에 조성될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85㎢(86만평)의 부지 면적에 약 3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FOX 브랜드 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6성급 호텔, 카지노, 콘도미니엄, 수상스포츠시설, 골프코스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투자자 모집과 총괄 개발사업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임기내 50년간 먹거리 완성… 글로벌테마파크 조성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권도전… 책임과 원칙의 정치 실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감도

웅동지구 항공 사진

-사업추진시 기대 효과는

"해외로 어느 곳과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접촉하고 있다. 총 사업비 35억 달러는 테마파크를 비롯해 콘도, 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골프코스, 수상 레포츠 시설 등 모든 시설을 조성할 총 사업비다.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100개 이상의 제조 업체 유지 효과와 맞먹는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와 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의 복지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은

"우리 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선택적 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선택적 복지는 한정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복지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4.6%인 2조 3575억원을 투입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복지 예산이 2조원을 넘었다.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 계층의 자립 자활을 도울 '희망울타리 지킴이' 구성 운영, 홀몸 노인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5~10인 공동 생활 사업 18개 시·군 확대 추진,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노인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는 시력 찾아주기 사업, 여성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조성 사업' 등이 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은

"살아오면서 자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항상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

대권도 마찬가지다. 경남지사로서 도정을 잘 이끌고 그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과 국민들이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면 대권의 기회도 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더십은 항시적인 것이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국가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결국 리더십 이전에 시대 정신의 문제인데,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고 시대 정신이 어디에 방점이 찍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정치인 홍준표의 경쟁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계파에도 속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독고다이라는 말도 듣지만 정치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다. 무리의 힘에 의해서 하는 정치는 자기 정치가 아니다. 책임과 원칙이 홍준표 정치의 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통에 발목이 잡혀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정치적 결단이 없는 시대,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없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단부단(當斷不斷) 반수기란(反受其亂)'이라는 말을 되새겨 봐야 한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진해에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된다

홍 지사·美 폭스사 등 MOU… "연 관광객 1000만명 예상"

홍 지사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최근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 빌리지 로드쇼와 세계적인 테마파크 리조트를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8년 개장하는 경남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는 35억 달러를 투자해 ▲폭스 브랜드 테마파크 ▲영화관 ▲프리미엄 아울렛 ▲콘도미니엄 ▲18홀 골프 코스 ▲6성급 호텔 ▲카지노 ▲해양 레포츠(워터파크 포함)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사는 1년 전 이미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세계적인 테마파크·리조트로 부산 진해 경제구역청내 웅동지구 일원에 들어서게 된다.

홍 지사는 "앞으로 폭스, 빌리지 로드쇼와 긴밀한 협력 관계로 성공적인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도 테마파크를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운데)와 제프리 고드식 폭스 컨슈머 프로덕트 사장(왼쪽), 팀 퍼서 빌리지 로드쇼 사장이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MOU 계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2033.85 (+7.23)	코스닥	512.78 (+3.1)
금리	2.49 (-0.01)	환율	1027.0 (-1.50)

삼성 세탁기 美 IT잡지서 호평

삼성전자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WW9000이 지난 22일 영국 IT전문 잡지 '엑스퍼트 리뷰' 평가에서 별점 5개 만점을 받고 추천제품으로 선정됐다.

엑스퍼트 리뷰는 "삼성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WW9000은 최고의 기능을 갖춘 현존하는 가장 진화한 세탁기"라며 "깔끔한 5인치 LCD 풀터치스크린 조작부는 세탁기 디자인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세제의 적정량을 알아서 투입하는 세제 자동투입 기능은 기존 세탁기와 완전히 차별화된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영기자

로또복권 (제60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4	8	19	20	33	44	4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43,539,018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70,837,086
3등	5개 숫자 일치	1,465,15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34~5
독자센터	(02)721-9891

2002년 1월 30일 창간, 서울특별시 가00088

은행권 CEO들 "여름휴가 못가요"

정부 제재·M&A·구조조정 등 현안 산더미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이 시작됐지만,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휴가를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제재와 인수합병(M&A), 기업 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이 쌓인 탓에 여름 휴가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요 금융사 20여 곳 중 여름휴가 계획을 잡은 CEO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사전통보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오는 17일, 24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또 KB금융은 LIG손보 인수를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CEO의 휴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여름 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T ENS 부실 대출, 금감원 종합검사 등으로 징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행장은 올해 은행내 일정과 거래처 방문, 제재심의 대비, 해외 출장, 자원봉사 등으로 여름을 보낼 계획이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은 우리은행 분리매각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휴가없이 세부 민영화 계획에 매달리기로 했다.

휴가가 없다. KDB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역시 여러 현안이 쌓여 휴가 일정을 못 잡고 있다. 동부, 현대, 한진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 현안이 산적한데다 최근에는 팬택의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대두되어 휴가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선언하면서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휴가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휴가를 정한 금융권 CEO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김주하 농협은행장 정도다. 그러나 이들 역시 휴가를 갖지 않으려 했지만, 임직원의 강권으로 떠밀리듯 휴가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종 금융사고 등이 겹친데다 금리 하락과 내수경기 침체로 영업환경이 악화돼 올해는 CEO들이 마음 편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다"고 전했다. /김보배기자 mini@metroseoul.co.kr

SK플래닛 '시원한 여름나세요' SK플래닛은 자사 서비스 호핀, OK캐쉬백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SK플래닛

'관광버스 반주기 금지법' 시행 연기

국토교통부는 27일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려다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를 생산하는 업계가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 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가무 행위를 막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김두탁기자 kim@

아토피 잡는 아파트… 친환경 마감재 '눈길'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 등 걸러낸 아파트 잇따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며 삭막한 콘크리트의 대명사로 불리던 아파트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수요자들이 '어디에, 어떻게'만큼 '무엇으로' 아파트를 지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친환경 마감재 열풍이 불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집 마련의 고려사항으로 입지·평면보다 마감재를 따져보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가 새집증후군 또는 아토피의 원인 물질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LH 조사결과 아토피·천식·비염·새집증후군 등 환경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친환경 마감재로 시공한 집에 머물게 했더니 증상이 완화됐다.

이처럼 친환경 마감재가 주택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며 친환경 인증을 받는 분양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평균 19.61대 1로 1순위 마감된 위례신도시신안인스빌 아스트로는 E0등급의 친환경 마감재와 HB마크 인증 접착제를 사용했다. E0등급이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기준으로 자재와 친환경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E1등급 이상일 때 친환경 자재로 분류된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용산 SI'는 친환경 욕재보드 KS E0급을 적용했다. E0급은 제품 제조 후 7일간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5mg/L 이하인 제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1급 보드의 기준이 1.5mg/L 이하인 것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박선옥기자 psun@

체력향상
밭가꾸기
명상
토론학습

이젠 일기장도 SNS 시대

휴대성 탁월·· 언제 어디서나 작성 이점

#5년차 은행원 이수연(29)씨는 연초부터 블로그에 매일 일기를 쓴다. 이씨는 "하루하루 일에 쫓기다 보니 내 자신이 소모되는 느낌이 든다. 일상을 점검할 겸 스스로를 돌아볼 겸 하루 일과를 기록으로 남기게 됐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블로그에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 짧게라도 일기를 작성 중이다. 종이 다이어리는 휴대하기 불편해 블로그 앱을 이용해 퇴근길마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가 종이 일기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웅진씽크빅 출판그룹은 성인 338명을 대상으로 '일상 반추와 기록'에 대해 공동 설문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6%는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1%였다.

하루를 반추하는 방식 1위는 '일기 작성'이었다. 일기를 쓰는 방법은 SNS 작성이 전통적인 종이 일기장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일기를 쓴다는 답변은 33.5%로 종이 일기장에 쓴다는 비율 35.3%와 비슷했다.

SNS에 일기를 쓴다는 이들은 대부분의 글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한다'는 답변은 6.8%에 그쳤다. 일기가 사적인 내용을 담는 만큼 SNS 일기 작성자들은 블로그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거나 페이스북 나만 보기 형태로 게시글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기를 쓰는 시간은 '취침 전'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녁식사 후 혼자만의 시간 때' '출퇴근길 이동수단에서' 등이 자지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현대인들은 현재를 점검하고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과 달리 SNS를 개인 기록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온라인에서 일기를 쓰는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은혜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주석 선물세트 미리 준비하세요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1~21일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건설사, 사상 최대 과징금

공정위, 4355억 부과 ·· 건설사 법인·임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호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에 사상 최대인 4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4355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 번째이고,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만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조35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이른다.

공사는 19개(최저가낙찰제 13개+대안 턴키 6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됐다. 이중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2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건설업계 '빅7'인 현대·대우·SK·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빅7 건설사를 포함한 21개사는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나머지 7개사(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는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들러리를 섰다.

/김대균기자 ksut@

고통스런 변제계획

김한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빚에 허덕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대개 월급을 타도 빚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거의 전부를 지출한다. 원리금 갚고도 모자라 생활비를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대로 놔두면 굶어죽거나 거리에 나앉게 된다. 그 가족들의 생활도 말이 아니게 된다. 큰 사회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따라서 사회의 마지막 단계의 구제수단의 하나다. 빚에 눌려 숨이 막히기 직전에 법으로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것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숨을 돌리고 다시 살아갈 의욕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가장 관심갖는 것이 변제계획안 작성이다. 즉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안이다.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사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들이 남의 빚을 전액 갚지 않아도 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시각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회의 마지막 구제수단 중 하나인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들에게 만만치 않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결정이 나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취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로 수년간 산다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 이상이다. 사회에 범람하는 온갖 욕망, 남들처럼 버젓이 살고 싶은 욕구를 모두 접어야 하는 게 최저생계비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보다 따뜻한 눈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www.swhelp.kr

보험, 용어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어렵고 복잡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고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험설계서의 보험용어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주요 보험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정액보험 vs 실손보험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 대표적으로 이에 속합니다

생명보험은 노후 생활비 마련이나 사망 후 유가족 생활 보호를 위해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하거나 사망시 정액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 정기보험 vs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됩니다

반면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약정된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이 상품의 주 가입목적은 유가족의 생활보호입니다

3. 갱신형 vs 비갱신형

갱신시 보험료가 새로 적용되는 것이 갱신형입니다 반면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으면 비갱신형입니다

갱신형의 경우 연령 증가와 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가 갱신시점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4 환급형 vs 순수보장형

환급형 보장성 보험은 만기가 돌아오면 이전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축의 성격이 있지만 엄연히 보험상품이므로 만기 때 받는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보다 적습니다

반면 순수보장형(소멸형)은 만기후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5.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한 후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변합니다. 보험료는 일반보험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6.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충분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노후 수입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7 유니버설보험

유니버설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보험입니다.

보통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유니버설보험은 주로 경제사정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8. CI보험

CI(크리티컬 일니스·Critical Illness)란 '중대한 질병'이라는 의미로 중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나머지는 사망시 받게 됩니다

문의 금융상담전화(1332)

/정리=김현정기자 hjk mt@metroseoul co.kr

KT "LTE 커버리지 비교해 보세요" KT는 자사와 경쟁사 광대역 LTE 커버리지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광대역 커버리지 맵'을 공개했다. /KT 제공

도시형 전원주택 '김포 그린힐' 분양

아이엘씨엔디는 경기도 김포시 마곡리에서 주문식 도시형 전원주택인 '그린힐' 2지 분양을 진행 중이다

파주대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여의도·목동 등 서울 시내까지 4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개화역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강신도시가 인접했으며 면사무소, 파출소, 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과 초·중·고교가 도보 5분 거리다

전원주택이지만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 획일적인 평면과 외관에서 탈피해 개성 있으면서도 편리한 스타일을 추구했다 아울러 1·2층과 다락방으로 구성해 공간활용을 최대화했다

구조는 일반 전원주택과 달리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벽식 구조로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벽을 외단열 공법으로 처리하고, 복층유리 이중창을 시공해 단열 효율성을 높였다

외벽 마감재는 스타코플렉스를 사용했다 스타코플렉스는 통기성과 평균성을 지니고 내피와 자음 효과가 뛰어나 세척성 내화성 방수성 부착성이 우수한 마감재로 꼽힌다

분양 관계자는 "전기·통신과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고 1지로 분양한 주택들은 공사가 완료돼 입주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문의 02 543-1177 /박선옥기자 psok@

"영화가 현실로…생체인식 기술 온다"

금융가 사람들

■ 정훈 KB금융지주 연구위원

학교 식당에 들어선 어린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손가락 하나다 어린이는 식사권 기계에 손가락 하나를 찍는 것만으로 식대 지불과 출석체크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나 목소리 홍채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사례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급식에 지문결제를 이용한 사례도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체인식 기술과 관련한 시장규모는 2016년 96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산업 부문, 특히 모바일 거래상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근 정보 보안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됐던 공인인증서와 Active-X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복제나 유출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체할 수단으로 개인 고유의 인증수단인 생체인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은 크게 본인인증과 '지불결제' 기능을 꼽을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은행 ATM 기기가 전국적으로 8만개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전용 모바일뱅킹 앱에서 1000달러 이상 송금 시 고객 본인의 목소리 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이 대중화 되려면 전국적으로 230만개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교체와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IT 투자 등이 필요하다"며 "생체 정보를 금융사에 등록해야 한다는 고객의 심리적 거부감과 불안감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지만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사회적 순기능도 명확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미란기자 mrpark@

'넉넉한 공간' 가족 여행의 동반자

7인승에 화물 적재공간도 넉넉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연비 높여

임의택의 차차차

■ 인피니티 QX60 하이브리드

레저 인구가 늘면서 자동차 수요 역시 다양하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승용차 외에 여러 모델을 보유한 업체는 경쟁에서 유리하다. 타 업체에 비해 차종이 적은 인피니티에 QX60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QX60은 원래 'JX'라는 이름으로 2012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SUV에 미니밴의 성격을 버무린 독특한 성격은 눈길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미국시장에 어울리는 큰 덩치와 나쁜 연비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를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올해 4월 등장한 QX60 하이브리드는 JX에서 QX로 이름을 바꾼 차종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더한 모델이다. 외관은 JX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한국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덩치일 수 있지만, 큰 덩치만큼 넓은 실내는 이 차의 장점이다.

실내 역시 JX 때와 같다. 깔끔하게 정돈된 대시보드와 고급스러운 내장재는 인피니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닥이 평평해 3명 앉기에 좋은 2열 시트도 이 차의 장점. 3열 시트는 초등학생 정도가 타기에 적당하다. 3열을 접으면 1277ℓ, 2열과 3열을 함께 접으면 2166ℓ의 넉넉한 적재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점도 돋보인다.

기존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적용이다. 차체 높이가 충분히 높은 덕에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실내공간은 그대로 살렸다. 세단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을 경우 트렁크가 좁아지는 것과 비교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V6 3.5ℓ 엔진 대신 직렬 4기통 2.5ℓ 가솔린 엔진과 15kW(20마력)의 전기모터로 구성됐다. JX35의 265마력보다 줄어든 253마력의 최고출력에 33.7kg.m의 최대토크를 뿜어낸다.

줄어든 출력과 토크가 주행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는데, 몸놀림은 기대 이상으로 가뿐하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좀 더 화끈한 반응을 보이며 가속이 빨라진다. 그러나 공차중량이 2150kg에 이르고 차체 높이가 1745mm에 이르기 때문에 QX70(구 FX)만큼 날렵한 핸들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역시 연비에서 가장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다. 도심 10.1km/ℓ, 고속도로 11.6km/ℓ의 연비는 JX35(도심 7.5, 고속도로 9.4)에 비해 30% 이상 개선된 수치다. 시가지를 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8.1km/ℓ를 기록했다.

QX60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7750만원으로 유사한 차종인 렉서스 RX450h(7910만~8510만원)보다는 저렴하다. 그러나 RX450h가 V6 3.5ℓ 엔진에 모터를 결합해 더 높은 출력을 내면서도 연비가 QX60 하이브리드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QX60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동급 경쟁자보다 넓은 공간과 개선된 연비에 있다. 그러나 JX35(7070만원)보다 비싸진 가격이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포르쉐·아우디, 美 소비자 마음 훔쳤다

미국 제이디 파워 조사, 만족도 가장 높아

미국 제이디파워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상품성만족도 조사'에서 포르쉐가 3개 차종, 아우디가 2개 차종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에게 총 10개 분야 93개 문항의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내외관 스타일, 주행 만족도,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편의성, 실내공간 등 감성적인 부분이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됐다.

국산차 중에 기아차는 콤팩트 다목적 차량(MPV)에서 쏘울이 1위에 올랐고 현대차는 엑센트가 소형차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 닛산 로그는 콤팩트 SUV에서 1위를 차지해 일본차의 체면을 지켰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쉐보레	스파크		510	720	750	890
기아	뉴모닝	570	520	650	850	
현대	엑센트신형		590	1,030	1,110	1,220
	i30	510	630	1,050	1,450	1,640
	아반떼MD	1,020	1,210	1,320	1,450	1,550
	YF쏘나타	1,420	1,555	1,630	1,730	1,750
기아	프라이드	630	720	770	1,300	
	포르테	850	930	1,040	1,110	1,180
	K5		1,510	1,600	1,750	1,900
쉐보레	크루즈		1,075	1,320	1,410	1,500
	말리부			1,850	1,950	2,19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입찰담합' 반성하면 경기부양에 동참시키자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최근에 정부 제2기 내각이 경기부양에 올인 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를 주도할 대형 건설회사들이 큰 수난을 겪고 있다. 대단위 국책사업을 둘러싼 입찰담합이 속속 드러나면서 천문학적 과징금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현재 내려진 10대 건설회사의 과징금만 대우건설 387억원을 비롯하여 2481억원에다 된다. 특히 4대강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입찰담합으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 경인운하까지 한꺼 입찰담합 판정을 받아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어기에다 2조원대의 호남고속철도 기초공사에 대해서도 22개 업체의 담합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3000억원의 과징금과 고발조치까지 내릴 예정이다. 입찰담합 업체에게는 과징금 부과 이외 최대 2년간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참여가 금지되고 공사발주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받게 된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지속되는 한 입찰담합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공공기관의 발주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점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는 부실공사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등 대형건설회사 수장(首長)과 임직원 150여명은 지난주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연이은 입찰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생사(生死)의 기로에 놓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머리 숙여 선처를 건의했다.

물론 고질화된 건설회사의 입찰담합비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부진 속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강도 높은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해야 하는지 재고할 여지가 있다. 특히 건설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체감경기의 선도업종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수주로 벌어들이는 외화획득의 선봉대다.

따라서 입찰담합 비리는 근절시키되 규제수위를 낮춰 지금 정부가 올인 하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동참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지금 정부가 동원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전통적인 수단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이러한 마당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대형 건설회사들을 합류시키면 경기부양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토프리즘 / 한여름에 즐기는 눈썰매

25일 오후 경기도 부천의 실내스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무더운 여름에 즐기는 겨울 스포츠에 관광객들의 환한 미소가 재미있다. /손진영기자 son@

'사면초가' 한국경제 살아날까

뉴스룸에서
김 학 성
<부국장>

한국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였다.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내수경기는 바닥이고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 대외 경제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심각성이 입증된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6%에 그쳐 7분기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다.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3% 감소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속속 발표되고 있으나 일부 글로벌 기업은 '어닝쇼크' 수준이다. 환율하락에 따른 공포가 현실화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영업이익은 올 2분기에 76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7%나 급감했다. 거침없던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7조2000억원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대외 경제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미국의 실적부진, 중국의 내수부진,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위기,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등이 맞물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4%로 4월대비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앞서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7%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면서 하반기 대내외 여건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새 경제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41조원 투입이라는 극약처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세제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이 총 망라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서라도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비장함도 엿보인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단기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장기정책 과제 등이 소홀한 것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책 발표에 그쳐서는 안된다. 장기정책 등을 더 보완하고 현안을 꼼꼼히 챙겨 실천에 옮겨야 한다.

보낼 수 없구나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난 꿈이 있었죠/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나를 지켜봐요/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이젠 세상에 없는 열아홉의 소녀 이보미가 수만 명이 모인 무대 위 영상에서 열정적인 가창력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었다. 가수 김장훈이 생과 사를 넘어 보미와 함께 듀엣으로 부른 "거위의 꿈"은 못다 핀 청춘의 너무 이른 유서였다.

세월호 참사 100일인 지난 7월 24일의 서울시 광장은 슬픔이 도리어 힘이 되는 시간을 태어나게 했다. 같이 운다는 것이 얼마나 예기치 않은 감성을 갖게 하는지를 깨우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픔이란 적당히 마비시켜 진정되는 것도 아니며 절제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건 비통함의 매듭이 풀릴 때까지 아파하면서 기억하는 길이 될 때 비로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의 미궁(迷宮)이다.

시인 허은실의 <제망매 흰 꽃들의 노래>라는 시를 읽자 모두의 가슴에 비가 흐르기 시작했다. "흰 꽃들 피네 이 봄 산천에/교복 안에 빛나던 너의 열여덟 (…)//무덤가에 휘이 호랑지빠귀 울면/그건 너의 목소리 휘파람소리//잠들지 마 잠들지 마 눈감지 마-/침몰하는 세상 조문하러/흰 꽃들 피네/오월 산천이/수의를 입네" 우린 아직 아이들이에요, 라는 표식인 교복이 이들의 되돌이킬 수 없는 사망을 확인하게 하는 수의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모두가 모두의 조문객이 되어 한없이 흐느꼈다.

"엄마, 엄마가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울어서 다 엄마의 눈물 속에 있었어요, 엄마의 눈물 속에 섞여서 엄마 얼굴을 만지고, 엄마의 볼에 내 볼을 부비고, 엄마의 손등에 떨어져 엄마 살갗에 스미곤 했어요 (…) 엄마! 보고 싶은 엄마! 엄마라는 말은 안녕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녕이란 말 대신 내 마지막 인사는 엄마예요, 엄마!" 시인 도종환의 글 <엄마>의 낭독에 끝나자 울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새벽 거리에서 화백 박재동이 시를 읊듯 입을 연다. "안녕이란 말 쓰지 말자/가는 너희가 안녕 하나/남은 우리가 안녕 하나/가는 너희가 떠날 수 있느냐/남은 우리가 보낼 수 있느냐?/그냥 있어라/엄마 아빠 곁에/엄마의 눈물 속에" 보낼 수 없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랑에는 "안녕"이라는 마지막 인사가 없다.

정당성 상실한 복지부의 의료 민영화

기자수첩
황 재 용
<생활경제부 기자>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서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의약계·시민단체·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싸움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들고 있지만 개정안이 곧 의료 민영화로 이어진다고 여긴 반대 세력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항은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추진했었지만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강조하는 정책의 정당성이 이미 상실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이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는 사실이 수차례 입증됐고 복지부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

게다가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조회 수가 180만 건을 넘었으며 복지부가 접수한 개정안 반대 의견도 6만건 정도 접수됐다. 특히 1백만명 이상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작한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영상의 조회 수도 45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민의(民意)를 방증하는 부분들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도 세종시 등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며 한시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복지부의 개정안에 등을 돌렸으며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다는 개정안과 복지부의 당초 의도가 현실에서는 더 큰 화를 불러온 셈이다.

이제 복지부는 독불장군의 자세를 버리고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회,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복날,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유혹

배스킨라빈스, 27~28일 패밀리 사이즈 4500원 할인 이벤트

배스킨라빈스(www.baskinrobbins.co.kr)가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복날 이벤트를 27일과 28일 이틀간 벌인다.

중복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복날 이벤트'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5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를 기존 가격보다 4500원이 할인된 1만5000원에 만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

특히 5가지 맛 중 핑크빛 딸기 아이스크림과 블루 컬러의 솜사탕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진 7월 이달의 맛으로 선보인 '31일간의 세계여행'을 선택한다면 맛있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귀띔했다.

뿐만 아니라 핑크, 블루, 화이트 세가지 색의 별 모양 초콜릿이 들어있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속 바삭한 초콜릿을 찾아보는 재미까지 쏠쏠하다는 것이다.

이번 이벤트는 해피포인트 적립과 타 쿠폰, 타 행사, 제휴 할인 등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또 일부 점포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점포를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무더위에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복날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스킨라빈스는 핑크빛의 상큼한 딸기 아이스크림과 포근한 솜사탕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진 7월 이달의 맛(FOM, Flavor of the Month) '31일간의 세계여행'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배스킨만의 고유 색감을 담아낸 이 아이스크림은 파스텔 핑크와 블루 컬러의 아이스크림이 보는 즐거움과 함께 상큼하고 달콤한 느낌을 더해준다.

상큼한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과 입 안에서 사르르 녹아 드는 솜사탕 맛의 무스 아이스크림과 별 모양 초콜릿이 들어있어 재미를 더한다. 싱글레귤러 기준 2800원.

/정윤형기자 jyh@metroseoul.co.kr

도심에서 즐기는 샤워 파티 코카콜라사의 사이다 브랜드 '스프라이트'가 지난 26,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연세로에서 '스프라이트 샤워' 이벤트를 벌였다. 이날 이벤트는 신촌 물총 축제 현장에서 열린 도심 속 상쾌한 샤워파티다. /코카콜라 제공

롯데리아 '기업대학 2기 수료식' 성료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지난 24일 '기업대학 2기생 75명의 수료식을 열었다. '기업대학'이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직자와 채용예정자 등을 높은 숙련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실시하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체제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업대학 인증을 받았으며 채용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햄버거 매장 관리자 학과와 커피 매장 관리자 학과 등 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롯데리아 기업대학을 수료한 사람은 총 114명이다.

이번에 수료한 이들은 지난 5월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시작으로 17일 간의 이론 교육과 18일 간의 현장 실습 교육을 마쳤다. 교육생들은 25일부터 전국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커피 직영점 매장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다.

햄버거 매장 관리자 학과 교육생들

특히 이번 기업대학 2기에선 매장 보조 스태프 관리자의 정규 관리자 수로 비율이 무려 54%나 됐다. 전체 수료생 75명 중 40명은 다년 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첫 정규 관리자 임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회사 측은 "수료생들은 매장 관리를 비롯해 고객과의 1차 접점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호텔 맥주 비싸다는 편견을 버려~"

무제한 리필·반값 할인 등 행사

무더위로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여름철이다. 특급호텔의 파격적인 맥주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먼저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의 그랑아는 매주 월~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해피아워'로 정해 스낵 뷔페와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다양한 요리와 와인, 그리고 막걸리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매주 목요일 '치맥데이'에는 치킨과 감자튀김을 맛볼 수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은 독일 뮌헨의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호텔 안에 옥토버페스트를 그대로 재현했으며 독일 전통요리와 옥토버페스트 기간에만 판매되는 밀 맥주를 만끽할 수 있다.

주중 점심 또는 저녁에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더 스퀘어를 이용하면서 1만1000원만 추가하면 생맥주가 무제한으로 리필된다.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의 모모 바에서는 모든 국산 맥주가 50% 할인 판매된다.

이와 함께 르네상스 서울 호텔도 야외 비어가든을 오픈하고 '바비큐&유로 패키지'를 선보였다. 여기에 1만5000원을 추가하면 무제한으로 레드 또는 화이트 와인을 즐길 수 있다.

또 롯데호텔서울은 노천 카페 콘코스 프라자에서 치킨윙과 클라우드 맥주 2잔으로 구성된 '클라우드 치맥 세트'(사진) 프로모션을, 롯데호텔월드의 라운지 앤 브라세리는 '타임 온 더 클라우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세종호텔은 주중(월~금) 오후 6~11시까지 비어 테라자를 운영해 스페셜 안주 뷔페와 와인,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더 플라자는 10월 2일까지 가든 테스트에서 미국서 인기가 높은 크래프트 비어 컬렉션 및 아이스크림 맥주를 선보인다.

리츠칼튼 서울의 올데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더 가든 야외정원에서는 즉석에서 셰프들이 직접 구워주는 바비큐 뷔페와 맥주, 와인을 함께 맛볼 수 있다.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명동 라따블 뷔페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맥주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바캉스 패션 '원피스 한 벌로'

활동성 좋고 팔색조 연출 가능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바캉스에 입을 옷을 사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는 활동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형형색색의 원피스가 바캉스 룩으로 인기다.

옥션에 따르면 바캉스를 앞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주 동안 여성 원피스 판매가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원피스는 상·하의를 따로 코디 할 필요가 없고 디자인에 따라 여성스러움·귀여움·섹시함까지 두루 연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활동성과 편안함이 특징인 맥시 롱 원피스는 같은 기간 60% 판매가 늘었다.

맥시 롱 원피스는 가슴 바로 아래부터 허리선을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고 치마가 A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통통한 하체를 가려준다. 시원한 색감과 하늘하늘한 소재 때문에 해변가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옥션에서는 주로 1만원대 중후반 가격대 제품이 인기였다.

장시간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무지 원피스의 판매량도 15% 신장했다.

몸매 라인에 따라 떨어지는 무지 원피스는 신축성이 좋아 편안함은 물론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민소매 무지 원피스가 부담스럽다면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여름용 니트나 롱 시스루 카디건을 코디하면 세련돼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발랄하고 귀여운 매력을 나타내고 싶다면 허리 라인을 강조한 프릴 원피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옥션은 캐주얼한 프릴 원피스 판매량이 60%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여름철 시원하고 깔끔해 보이는 흰색·남색 등 무채색 계열의 스트랩 샌들과 스냅백을 함께 착용하면 더 활동적이고 발랄해 보인다.

서혜미 옥션 의류팀장은 "바캉스를 앞두고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고민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여성 의류 판매가 약 15% 증가했다"며 "특히 원피스는 편안하면서도 패션 소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바캉스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라고 전했다.

/김혜란기자 kim1464@metroseoul.co.kr

"보기만 해도 시원한 우리집"

메탈릭 소재·간접 조명… '체감 온도' 내린 인테리어

무더운 여름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쾌적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공간디자인 기업 에스갤러리 관계자는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패브릭 등을 잘 활용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체감 온도' 낮추는 인테리어 팁을 공개했다.

거실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소파는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 이땐 소파 커버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내추럴 소재와 화사한 색상·패턴의 커버를 추가로 제작해 갈아 끼우면 시즌마다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리넨·코튼 등 자연 소재의 패브릭 소파에 같은 톤의 커튼으로 통일감을 주고, 크롬·브론즈와 같이 차가운 메탈 소재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하면 감각적이면서도 시원한 인테리어가 완성된다.

휴식의 공간인 침실은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

먼저 가구는 화려한 컬러보다는 모노톤의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한다. 침구는 화사하고 깨끗한 화이트 면 백딩을 베이스로 옅은 색의 리넨 스프레드로 포인트를 준다. 조명은 눈부시고 밝은 형광등 대신 벽·천장등을 이용한 간접 조명을 설치하면 청량하고 시원한 공간이 완성된다.

/박지원기자

여름 패션, '아트'를 입다

푸마·리바이스 등 콜라보레이션 컬렉션 선보여

올여름 패션업계에 콜라보레이션 열풍이 불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손잡고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푸마는 뉴욕에서 활동중인 작가 소피아 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내놨다. 소피아 장은 판화·디자인·대중매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는 푸마의 헤리티지 제품에 뉴욕 브루클린에서 영감 받은 일러스트와 그래픽을 적용, 소피아 장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1960년대 미국 농구장에서 명성을 떨치던 푸마 바스켓 클래식에 뉴욕 스트리트 패턴을 입힌 가죽 스니커즈로 로우탑과 미드탑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리바이스는 사이키델릭 아트를 대표하는 '릭 그리핀'의 일러스트를 담은 2014 가을 컬렉션을 공개했다.

환각적인 상태를 뜻하는 사이키델릭 아트는 강렬한 무늬와 색감으로 몽환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리바이스는 릭 그리핀의 거장면서도 유쾌한 분위기의 작품 중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13개의 일러스트를 엄선했다.

브랜드는 국내 비주얼 팝 아티스트인 275C와 함께 '위드비 팝' 라인을 출시했다.

275C는 1960~70년대 스타일과 패턴 등을 이용해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다. 이번에 선보인 위드비 팝 라인은 깜찍한 하트와 새 일러스트가 돋보이며 백팩·소화백 15종으로 구성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명 예술가의 손길이 닿은 한정 제품은 소장가치를 더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경쟁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패션업계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힐링' 지고 '체험·캠핑' 뜨고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있다. 새로운 자극과 역동적인 모험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체험'이 '힐링'을 앞섰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SK플래닛 M&C부문이 여름휴가 관련 국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상의 입소문(버즈) 40만 건을 분석해 발표한 빅데이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키워드 출현빈도에서 지난해 대비 '힐링'은 34%, '휴식'은 53% 감소했다. 반면에 '체험'은 42%, '캠핑'은 71% 급증했다. 이는 최근 사람들이 스트레스 극복의 방법으로 편안한 휴식보다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몸으로 체험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을 선호하게 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기업들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접목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오프로드는 8월 8일까지 '오프로드 리더' 4개 를 모집한다.

회사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아웃도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일방적인 마케팅 활동에 참가자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참가자가 평소 즐기던 활동을 주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모집은 관련 동호회 모임을 즐기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아자동차는 K7 멤버십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맞춤형 헬스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썸머 에너자이징 클래스'를 열 계획이다. 지원자 중 30명을 선발해 서울이나 부산에 위치한 리복 크로스핏 센터에서 크로스핏을 배우고 트레이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늘기자

베이직하우스, 유기동물입양 캠페인

캐주얼 브랜드 '베이직하우스'는 다음 달부터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버려지는 유기 동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동물자유연대와 이번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입양프로그램을 알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입양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올드독과 스노우캣 작가의 그림·사진이 프린트된 '스노우캣&올드독 티셔츠'를 선보인다. 이 티셔츠 판매 수익금 일부는 동물자유연대 입양 캠페인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하늘기자 kimc0411@

똑똑한 스킨케어 제품 주목

미용 도구 접목 정교한 관리 가능

최근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꼼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퍼프, 브러시와 접목한 메이크업 제품에 이어 스킨케어 제품에도 미용 도구들이 적용되고 있다.

미용 도구를 사용하면 간편하면서도 정교한 스킨케어가 가능하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곳에는 손 대신 전용 도구를 사용해 자극을 최소화시키고 손이 잘 닿지 않는 국소부위에는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뷰티 업계는 기존의 제품에 각종 도구를 결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차단 효과가 지속되지만 야외활동 시 퍼프가 장착된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면 손을 사용할 때보다 뭉침 없이 고르게 펴 바를 수 있다. 더마비의 '슈브이 선샷 SPF50+ PA+++'는 퍼프가 장착된 펌핑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로 퍼프 교체가 가능해 여름철에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또 즉각적인 쿨링감을 줘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며 미백·주름개선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클렌징 역시 손 세안만으로는 모공 속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완벽하게 닦이지 않고 인중과 코 사이 등 굴곡진 부분을 놓치기 쉽다. 이 때 클렌징 전용 브러시를 이용하면 깨끗해진다. 클라리소닉의 '미아 2'는 얼굴 전용 브러시가 장착된 전동 클렌저로 한국 여성의 피부에 맞는 센시티브 브러시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으며 무리한 세안으로 인한 피부 손상, 트러블을 예방한다.

눈 밑은 피부가 얇아 무작정 손으로 제품을 바를 경우 자극으로 인해 주름이 생기기 쉽다. 이때 눈가 전용 도구를 이용한 셀프 마사지를 통해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다. 크리니크의 '이븐 베터 아이스 다크서클 코렉터'는 눈가 굴곡에 맞춰 설계된 메탈 어플리케이터가 장착된 눈가 전용 제품이다. 내용물을 소량 도포한 후 어플리케이터로 마사지를 해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으며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눈가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장혜진기자 hluna1404@metroseoul.co.kr

수지크림 싸게 사세요

더페이스샵 할인행사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고객은 품목별로 5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50% 할인품목인 '내추럴 선 Eco 피지잡는 수분선'은 더페이스샵 베스트셀링 자외선 차단제다.

강력한 수분 보유력의 치아씨앗이 촉촉한 수분감을 주고 코튼 씨앗이 불필요한 피지를 잡아 땀이나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에도 번들거림 없이 보송보송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강력한 자외선 차단 및 워터프루프 기능을 갖춰 땀이나 물에 많이 노출되는 여름철에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

'수지 크림'이라는 애칭으로 출시 이후 100만 개 이상 판매돼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치아씨드 피지잡는 수분크림 더 용량'은 목화씨앗이 과다한 피지는 잡아주고 치아씨앗이 피부 속 깊이 풍부한 수분을 전달해주는 수분크림이다.

땀과 피지로 피부 표면은 번들거리고 피부 속은 건조하기 쉬운 여름에 사용하기에 좋다.

이 밖에도 더페이스샵은 3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정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장혜진기자

여름방학, 현실은 '학업매진' 진심은 '여행'

학생·학부모 입장 바꿔 물어보니…

중·고생들과 학부모들은 여름방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학부모와 중·고생들의 여름방학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에리트베이직의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대표 최병오·홍종순)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3주 간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온라인 서포터즈 커뮤니티(엘리트 카페 엘팜카페)를 통해 '여름방학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녀 학생 155명, 학부모 99명 총 25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모두 학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름방학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습 능력 향상(학생 32.3%, 학부모 28.3%)'을 1순위로 꼽았다. 성적 향상과 대학 입시에 대한 현실적인 압박감 탓에 방학에도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중·고교생의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 씁쓸하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이 외에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다이어트, 피부미용 등으로 외모 가꾸기(23.1%)'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아이가 외모에 신경쓰기 보다는 '적성 찾기(26.1%)'나 '취미나 특기 만들기(21.7%)'에 더욱 집중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만약 학생들이 부모가 된다면 혹은 학부모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여름방학 계획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 질문에서는 '여행 가기(학생 44.6%, 학부모 37.0%)'가 압도적인 1위로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여름방학에 함께 하고 싶은 특별 멘토'를 선정하는 질문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갈렸다. 학생들은 '어디든지 데리고 여행 모험을 떠날 것만 같은 개그맨 김병만(33.8%)'을 1위로 선택한 반면 학부모는 진로고민을 잘 상담해줄 것 같은 MC 김제동(37%)을 1위로 선택했다.

/김학철기자 kimc0674@

개성 담은 '헤나' 인기끄네

영구 문신 아니라 부담 적어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가벼워진 옷차림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헤나 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헤나 아트는 '헤나' 식물을 사용해 피부에 색을 입히는 것으로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은 영구 문신과 달리 2~3주 정도 지나면 사라져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민소매 옷을 입었을 때 드러나는 팔이나 쇄골 부위, 비키니를 입었을 때 보이는 허리나 골반 부위 등에 다양한 스타일로 디자인할 수 있다.

특히 올 여름에는 화려한 문양보다는 자신만의 개성과 의미를 담은 작은 문양이나 글자를 새기는 레터링 헤나 등이 인기다.

또 손가락이나 손목·발목 등에 액세서리를 한 듯한 느낌을 주는 밴드 문신이나 알록달록한 팔이 돋보이는 화려한 레인보우 타투에 대한 관심도 높다. /장혜진기자

옥션, 내달 1일까지 워터파크 입장권 최대 50% 할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에서 국내 주요 워터파크 5곳의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올킬 슈퍼위크 워터파크 특집' 프로모션을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 일일 특가상품은 매일 오전 10시에 판매가 시작되며 옥션 검색창에 '올킬 슈퍼위크' 등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ALL KiLL SUPER WEEK

28일에는 영남권 최대 워터파크인 경주 블루원 골드시즌 입장권을 일일 1만5000매 한정으로 일자별로 30~40% 할인된 3만8900원~4만5900원(성인 기준)에 판매한다.

이 워터파크에서는 8월 17일까지 K-POP 콘서트와 디너쇼가 함께 열린다. 30일에는 소녀시대 티티서, 1일에는 휘성과 배치기, 8일에는 시크릿, 17일에는 에일리 등 인기 가수 공연이 야외특설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9일에는 유러피안 콘셉트의 '천안 테딘 워터파크 골드시즌 입장권'을, 30일에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를 테마로 꾸민 '롯데 김해 골드시즌 입장권'을 선보인다. 또 31일에는 '캐리비안베이 골드시즌 입장권'을 판매한다.

8월 1일에는 여수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종일권'을 반값에 판다. /김학철기자

metro entertainment

악역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나요

'군도: 민란의 시대'로 돌아온 배우 **강동원**

배우 강동원(33)이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로 돌아왔다. '군도'는 개봉 나흘만에 관객 200만을 돌파하며 올 상반기 흥행 기록을 갈아 치웠다. 강동원은 악랄한 방법으로 양민들을 수탈해 나주 대부호로 성장한 조윤을 연기했다. 조윤은 군도가 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악역이지만 나름의 사연과 아픔을 지닌 캐릭터다.

◆ 조윤은 악역인데 강동원의 섬세한 연기 때문인지 전혀 악역같아 안보인다는 평이다. 자칫 캐릭터 간에 균형이 깨질 수도 있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하며 연기했는가

-조윤은 시나리오 자체에 이미 모든 게 설명된 캐릭터라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더 신경 쓸 건 없었다. 아, 물론 더 악랄해 보이도록 신경 썼다. 매 신마다 내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조윤은 결핍으로 인해 뒤틀어진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그 역시도 시대의 희생양이다.

◆ 윤종빈 감독과 첫 호흡이다. 군 전역 후 첫 복귀작인데 윤 감독과 함께한 이유가 있는가

-(작품을 고를 때) 같이 있지. 의형제 때도 그랬고 초능력자 때도 그랬다. 사람을 봤을 때 같이 온다.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윤 감독이 그러했다. 그런 사람들이 재밌다. 사실 나도 그렇다. 하정우 형도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조만간 한대극 같이 한 번 해보자'고 했다.

◆ 하정우가 본인 연출작품에 출연 제의하면 받아들일 의향은 있는지

-난 시작으로 전해다고 막 출연하는 타입은 아니다. 만약 하정우 형이 "야, 동원아 형 작품 좀 출연하자"라고 말해도 별로면 안 한다. 그리고 형이 출연 제의도 안 했다. 좋은 건 다 자기가 하려고(웃음)

"영화에서 풍부한 볼거리 제공하는게 나의 역할 촬영 끝나고 아쉬워 눈물… 연기할때 가장 행복"

◆ 조윤과 도치(하정우)의 액션신에서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던데

-액션 훈련만 4개월 가까이 했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느꼈을 때 촬영을 시작했다. 액션은 촬영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내고 시작해야 한다. 검들기보단 매일 좋았다. 훈련과정이 워낙 탄탄해서 촬영할 땐 어려움이 없었다. 칼 쓰는 법을 처음 배웠다. 두 달 동안 수평 베기, 목검으로 내려치기 등 기본기만 연습했다. 승마도 산에 올라가서 배웠다. 다들 한 번씩 사고를 겪어서인지 힘들어 거의 말을 싫어했다. 말은 날 좋아했다. 내가 가장 가벼워서 그런가(웃음). 실제로 말이 무거운 사람을 태우면 힘들어한다.

◆ 조윤은 아름다운 외모같다

-영화에서 내 역할은 액션이든 무엇이든 볼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어찌됐든 멋있어 보이는 게 목표였다고 해야 하나. 윤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했다. 군도패가 터프한 상남자, 짐승 같은 느낌이라면 조윤은 차분하고 냉정한 느낌으로 가고자 했다. (막판에 아름다운 액션신이 탄생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장면은 신선했다.) 분장 담당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난 좀 더 부스스해도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분이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아름답게 해야 한다면서 가발에 계속 트리트먼트 뿌렸다(웃음).

◆ 영화 뒤풀이 현장에서 왜 울었는가

-아쉬웠다. 다 찍고 싶었다. 또 조윤 캐릭터로 좀 더 있고 싶었다. 오랜만에 연기해서 촬영 중반까지 컨디션이 안 올라오기도 했다. 이제 조윤이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땐 이미 영화 중반이 넘어선 상태였다. 물론 술 한 잔을 마시기도 했었다(웃음). 영화 스탭끼에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는데 어쩌니 눈물이 나던지. 그 때 나만 울었다. 김재영(금산 역) 씨가 위로해 줬다. "동원 씨 열심히 한 거 안다. 눈물 나올 만하다. 내가 안다"이랬다(웃음).

◆ 악역을 연기하는 강동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염려와 달리 잘 해낸 것 같다

-사람들의 시선을 배반할 순 없다. 너무 이상한 걸 하면 배반이니까. 나를 복귀작인데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역할 맡으면 놀랄 거 아닌가(웃음). 사실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주위에서 만류했다. 하지만 난 시나리오보다 윤 감독님을 먼저 만나서 확신했다. 또 잘 할 자신도 있었다.

◆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혹시 드라마 복귀 계획은 없는가

-아직 없고 또 시나리오도 잘 안 들어온다. (영화든 드라마든) 연기가 정말 재밌다. 하나씩 만들어 나가 완성되는 게 좋다. 현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 [illegible]/디자인 [illegible]

빅뱅 1000억대 돔 투어 한번 더

11월 5개 지역서 54만 관객 몰이… 지난해 능가할 듯

빅뱅(사진)이 일본에서 돔 투어로 정상급 아티스트의 위상을 증명한다.

빅뱅은 11월 일본 5대 돔 투어 '빅뱅 재팬 돔 투어 2014'를 연다. 11월 15~16일 나고야돔을 시작으로 20~23일 오사카 교세라돔, 12월 6~7일 후쿠오카 야후오쿠돔, 20일 삿포로 돔, 26~27일 도쿄돔까지 총 5개 돔에서 11회 공연을 펼친다. 총 예상 관객 수는 53만6000명이다.

앞서 빅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타마 세이부돔을 포함해 6개 돔에서 첫 돔 투어를 진행했다. 당시 총 16회 공연으로 77만1000명의 관객을 모았다. 티켓 매출만 약 748억원, 머천다이징(MD) 상품 판매까지 합하면 1000억원을 넘는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티켓 가격인 9500엔(약 9만5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도 약 513억원의 티켓 판매 매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MD 상품 판매와 관련상품 수가 공연 티켓 매출까지 합하면 지난해 수준의 수익을 또 한번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일본 5대 돔 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은 "올해도 일본 돔 투어로 팬들을 만날 수 있어 멤버들 모두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훨씬 넘치는 무대를 보여주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올해 연말은 돔에서 우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빅뱅 멤버들은 일본에서 활발한 솔로 활동을 펼쳐와 이번 공연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성은 지난 15일 발매한 'D's 러브'로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를 기록했다. 또 솔로 아레나 투어 'D-라이트 D라이브 2014 인 재팬~D's 러브~'를 개최해 총 8개 도시에서 15회 공연을 할 예정이다.

태양은 최근 발표한 정규 2집 '라이즈'로 14개 국 이상의 차트를 석권했다. 다음달 13일에는 일본에서 솔로로 데뷔하고 일본 6개 도시에서 13회에 걸쳐 솔로 콘서트 투어를 한다.

한편 빅뱅은 다음달 2일 일본 도쿄의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a-네이션' 무대에 오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빌보드 씨스타 '터치 마이 바디' 호평

"효린 특유의 매력적 보컬"

미국 빌보드가 걸그룹 씨스타(사진)의 신곡 '터치 마이 바디'를 호평했다.

빌보드는 최근 씨스타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터치 마이 바디'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빌보드는 "그룹 씨스타가 색소폰 소리가 돋아나는 여름곡 '터치 마이 바디'로 돌아왔다"며 "엉덩이와 어깨를 들썩일 만한 이 곡에 어울리게 그들은 뜨거운 태양에 어울리는 섹시한 새로운 비주얼로 컴백했다"고 '터치 마이 바디'를 소개했다.

이어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라블럼'과 같이 씨스타의 신곡 '터치 마이 바디'는 중독적인 색소폰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며 "'터치 마이 바디'는 귀에 잘 꽂히는 코러스와 효린 특유의 머라이어 캐리 같은 매력적인 보컬, 그리고 래퍼 보라만의 귀여운 랩 파트가 가미됐다. 기존 K-팝에 비해 최근 트렌드에 가까운 곡"이라고 평가했다.

'터치 마이 바디'는 라도와 최규성이 공친 블랙아이드 필승의 곡이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멜로디와 도입부의 색소폰이 인상적인 힙합 댄스곡이다. 지난 27일 기준 각종 온라인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다. /김성준기자 yoe@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9 시즌2' 생방송 진출자 두고 시청자 게시판 '시끌'
'쇼미더머니3' 프로듀서·참가자 같은 소속사 논란 일어

엠넷 '댄싱9'과 '쇼미더머니'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덕분에 실력자와 숨은 고수를 고루 만날 수 있는 반면 처음부터 불공평한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5일 엠넷 '댄싱9 시즌2'에서 레드윙즈·블루아이 마스터들은 생방송 파이널리그 진출자를 확정했다. 이날 레드윙즈 마스터들은 한 자리 남은 남자 현대무용에 정석순 대신 윤나라를 선택했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엔 "결어이 형 사람이 떨어졌다"며 "방송에 인맥과 파벌이 작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나라는 예선 과정에서 이용우 블루아이 마스터에게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들었다. 앞서 '댄싱9'은 열정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시즌1 참가자 김분선은 "열의가 없다"는 박지우 레드윙즈 마스터의 평가에 따라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은 윤나라가 생방송에 진출하자 시청자들은 그의 출신 학교와 소속 무용단이 심사기준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쇼미더머니3' 역시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다. 논란은 지난 24일 방송에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연습생인 바비이가 패자부활전을 통해 본선에 진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방송에서 프로듀서들은 제작진에게 3차 예선에서 아깝게 탈락한 실력자들 4명을 뽑아 그 중 2명을 추가 합격시키자고 제안했다. 일선 시즌에선 볼 수 없던 사례였다. 결국 3차에서 탈락했던 YG의 바비이와 저스트뮤직의 기리보이가 패자부활전을 통해 추가로 합격했고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실력을 떠나 패자부활전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었다.

참가자 김정희는 랩을 통해 유명 래퍼들과 대형 소속사 아이돌이 본선에 가면 일반인 참가자를 위한 공석이 몇이나 되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대로 본선에 오른 16명의 래퍼들 중 상당수는 프로듀서와 같은 소속사다. 심지어 방송 분량도 차이가 난다. 최종 본선에 오른 참가자 토이와 부전석의 랩을 하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방송되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두 프로그램이 학연과 지연이 실력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ianak@

엠넷 '댄싱9 시즌2' 참가자 윤나라

엠넷 '쇼미더머니3'에 참가한 바이어(왼쪽)와 바비(오른쪽)

비행기2: 소방구조대 / 터키 / 명탐정 코난: 이차원의 저격수 / 극장판 뛰뛰빵빵 구조대 미션: 뚱뚱이를 구하라!

여름방학 가족용 애니메이션 '풍성'

할리우드·일본·한국 작품 동시 개봉

또 다시 애니메이션의 시즌이 돌아왔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가족 관객들을 위한 작품들이 대거 개봉을 준비 중이다. 할리우드와 일본 등 해외 작품은 물론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들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할리우드 작품 중에서는 '비행기2: 소방구조대'와 '터키'가 눈에 띈다. 다음달 14일 개봉하는 '비행기2: 소방구조대'는 디즈니의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지난해 개봉한 '비행기'의 속편이다. 전작에서 레이싱 세계 챔피언이었던 비행기 더스티가 엔진 고장으로 더 이상 레이싱을 할 수 없게 되자 소방구조대의 길로 뛰어들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전작을 능가하는 풍성한 볼거리, 더스티를 비롯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유쾌함을 담았다.

오는 31일 개봉 예정인 '터키'는 '호튼'의 지미 헤이워드 감독이 연출하고 '슈렉' 시리즈와 '쿵푸 팬더2'의 제작진이 참여한 작품이다. 추수감사절 대표 음식인 칠면조 요리를 없애기 위해 칠면조들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열린 1621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할리우드 제작진의 정교한 기술, 여기에 오웬 윌슨과 우디 해럴슨 등 스타 배우들의 더빙으로 생생한 재미를 더했다.

일본 TV 애니메이션의 극장판도 여름방학 극장가를 찾는다. 다음달 7일 개봉하는 '명탐정 코난: 이차원의 저격수'는 인기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저격수와 코난의 두뇌 싸움을 그렸다. 지난 4월 일본에서 먼저 개봉해 역대 극장판 작품들 중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 업그레이드된 액션과 함께 극장판에 등장한 적 없었던 원작 캐릭터들의 대거 출연으로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도 할리우드와 일본의 작품들과 경쟁에 나선다. '극장판 뛰뛰빵빵 구조대 미션: 뚱뚱이를 구하라!'는 KBS에서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뛰뛰빵빵 구조대'의 극장판이다. 방영 당시 귀여운 캐릭터들로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극장판다운 스토리와 새로운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프로젝트 제작 지원을 받았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의 2013 애니메이션 개봉지원작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애니메이션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마카오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레인보우 TV 어워드에서는 TV 애니메이션 부문 우수 캐릭터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음달 7일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이제훈, 스크린·브라운관 동시 공략

전역 후 영화 '명탐정 홍길동'·드라마 '비밀의 문' 차기작 확정

지난 24일 전역한 배우 이제훈(사진)이 영화 '명탐정 홍길동'과 드라마 '비밀의 문'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명탐정 홍길동'은 '늑대소년' 조성희 감독의 신작이다. 고전 소설의 주인공인 의적 홍길동을 현대를 배경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립탐정 캐릭터로 탈바꿈시킨 작품이다. 이제훈은 비상한 기억력과 독특한 성격을 지닌 사립탐정 홍길동을 연기한다.

조성희 감독은 "자기애과 순수함이 공존하는 홍길동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하기에 이제훈이라는 배우가 지닌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이 좋았다"고 밝혔다. '명탐정 홍길동'은 오는 11월 크랭크인 예정이다.

드라마 '비밀의 문'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을 다룬 드라마다. 이제훈은 사도세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영조의 아들 이선 역을 맡았다. 영화 '파파로티'에서 호흡을 맞췄던 한석규와의 재회로 화제가 됐다. '비밀의 문'은 '유혹' 후속으로 오는 9월 중순 SBS에서 방영된다.

/장병호기자

트래비스 / 카사비안

카사비안·트래비스 한여름 록 파티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내달 1~3일 열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쾌적한 공연 환경, 고점무대, 합리적인 티켓가격 등으로 원조 페스티벌의 위용을 과시한다.

올해 펜타포트는 다음달 1~3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메의 밑으로는 카사비안이 6년 만에 내한한다. 카사비안은 2014년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이자 2000년대 이후 브릿팝계의 최강 밴드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2008년 펜타포트에서 처음 한국 팬과 만났던 브릿팝의 3대 뮤지션인 트래비스가 6년만에 다시 펜타포트 무대에 선다.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로 국내에 많은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보이즈 라이크 걸즈가 처음 내한한다.

하드코어 펑크 메탈의 원조라 불리는 수이사이달 텐던시즈, 2000년대의 감성 록밴드 스타세일러, 파격적인 사운드로 록 스피릿을 충만하게 해 줄 인스펙터 클루조가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또 영국의 실력파 록 밴드 더 호러스, 일본의 오렌지 레인지도 펜타포트를 찾는다.

국내 가수로는 이승환이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이 외에 국내 뮤지션으로는 크래쉬, 어반자카파, 로맨틱펀치, 디어클라우드, 피아, 솔루션스, 게이트즈, 데이브레이크, 해리빅버튼, 킹스턴루디스카, 넘버원코리안,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쏜애플, 워터나이츠, 투디스밀로 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유순호기자 suno@

이승기·문채원 '오늘의 연애'로 재회

연애 루저-과격한 기상캐스터 변신

배우 이승기(왼쪽 사진)와 문채원(오른쪽)이 로맨스 영화 '오늘의 연애'(가제)로 만난다.

'오늘의 연애'는 달콤한 미묘한 남녀 사이의 관계를 그린 영화로 '너는 내 운명' '그놈 목소리' 등을 연출한 박진표 감독의 신작이다.

이승기는 상대에게 늘 퍼주기만 하다 차이기 일쑤인 연애 루저 준수 역을 맡아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문채원은 뛰어난 미모와 달리 걸쭉한 입담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기상 캐스터 현우 역으로 3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이승기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자연스러운 관계를 그리낸 스토리가 흥미로웠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장르라 기대된다"며 "영화는 처음이라 설레고 그만큼 부담감도 있다. 하지만 욕심 내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채원은 "따뜻하고 현실적인 로맨스 속에 재미와 유머가 담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사랑이야기라 좋았다"며 "관객들에게 배우 문채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오늘의 연애'는 7월 말 크랭크인해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1년에 단 3일!!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할 단 하나의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14

9th

AUG 1-3 @송도 달빛축제공원 PENTA PARK / WWW.PENTAPORTROCK.COM

8.1 FRI	8.2 SAT	8.3 SUN
	PENTAPORT STAGE	
이승환	KASABIAN	TRAVIS
데이브레이크	IDIOTAPE	STARSAILOR
SUICIDAL TENDENCIES	BOYS LIKE GIRLS	블랙맨션
피아	CRASH	로맨틱펀치
MAXÏMO PARK	ORANGE RANGE	킹스턴루디스카
	장미여관	스컬앤하하
	DREAM STAGE	
CROSSFAITH	THE HORRORS	장필순·조동희·오소영
THORNAPPLE	페퍼톤스	어반자카파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THE INSPECTOR CLUZO	SCANDAL
LIZZY BORDEN	디어클라우드	체리필터
피해의식	솔루션스	위아더나잇
DEMPAGUMI.inc	넘버원코리안	ACOLLECTIVE
	라이프앤타임	스몰오
	MOONLIGHT STAGE	
써드스톤	이지형	RUX
WANGEL	루디스텔로	노리스펙트포퓨티
HUGH KEICE	메이시스터즈	Fourbrothers
MY SKIN AGAINST YOUR SKIN	애쉬그레이	RED FLOWER

REGGAE STAGE

COMING SOON

TICKET

1544 1555

괴물 vs 거물… 누가 웃나

류현진, 오늘 사이영상 수상자 출신 피비와 선발 맞대결

시즌 12승에 도전하는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큰사진)의 선발 맞대결 상대가 사이영상 수상자 출신의 거물급 투수로 교체됐다.

27일 MLB닷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오른손 투수 제이크 피비(작은사진)를 영입했고 28일 다저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투입한다. 28일 경기에서 다저스는 류현진을, 샌프란시스코는 당초 유스메이로 페티트(30)를 선발로 예고했다.

그러나 다저스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유망주인 왼손 투수 에드윈 에스코바르와 오른손 투수 히스 헴브리를 내주고 영입한 피비를 즉시 교체 투입하기로 했다. 지구 라이벌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이자 막강한 선력을 자랑하는 류현진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결의로 엿볼 수 있다.

피비는 샌디에이고 시절이던 2007년 다승(19승 6패), 평균자책점(2.54), 탈삼진(240개) 부문 내셔널리그 1위에 오르며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이후 부상으로 부진하다 2012년 11승 12패를 거두며 재기했고, 지난해에는 12승 5패 평균자책점 4.17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지난해 시즌 중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보스턴으로 옮기며 월드시리즈 우승도 맛봤다.

그러나 올해는 지구 꼴찌로 추락한 보스턴의 성적만큼 피비도 또 다시 부진했다. 1승 9패 평균자책점 4.72를 기록 중이다. 피홈런 수는 아메리칸리그 1위인 20개다. 샌프란시스코는 "분위기만 바뀌면 예전의 기량을 찾을 수 있다"고 피비의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류현진과 피비의 맞대결은 처음이다. 지난해 류현진이 8월 25일 보스턴과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고, 피비가 8월 26일 다저스전에서 9이닝 3피안타 1실점의 완투승을 거둔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에이스' 커쇼 생애 9번째 완봉승

2피안타 1볼넷 7K 완벽투

LA다저스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26·사진)가 생애 9번째 완봉승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제압했다.

커쇼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9이닝 2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12승을 완봉승으로 장식했다.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에 5-0으로 승리했다.

특히 커쇼의 이날 완봉승은 생애 9번째이자 시즌 2호 완봉승이었다. 커쇼는 그 중 4번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뒀다.

또 커쇼는 이 경기 전까지 샌프란시스코전 통산 방어율이 1.48밖에 되지 않았다.

또 커쇼는 이날 완봉승으로 팀 지구 선두를 이끌며 에이스 역할을 더 공고히 했다.

LA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58승47패를 기록, 57승47패의 샌프란시스코에 반 경기차로 앞서게 됐다. 또 커쇼는 시즌 방어율도 1.76으로 낮아졌다.

한편 LA다저스는 28일 샌프란시스코전에 선발로 나서는 류현진(27·11승 5패)이 승리를 챙길 경우 다승 선두 그룹에 합류할 수 있다.

/김성현기자

이보미 JLPGA투어 시즌 두번째 우승

이보미(26·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27일 일본 시즈오카현 이즈오히토 컨트리클럽(파72·6천531야드)에서 열린 센추리21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였다. 선두에 1타 뒤진 2위에서 3라운드를 시작한 이보미는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적어내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을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우승 상금은 1080만엔(약 1억892만원)이다.

/김성현기자

대한항공 프로배구 컵대회 3년만에 우승 탈환

여자부 현대건설 8년 만에 정상 올라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우리카드를 꺾고 3년만에 컵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대한항공은 27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14 안산·우리카드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주포 신영수의 맹타를 앞세워 우리카드를 3-0(25-22 25-19 25-22)으로 완파했다.

대한항공이 컵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4회 우승)에 이어 남자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컵대회 우승컵을 수집해 또 하나의 어큐 컬트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팀을 강호로 이끈 김학민·한선수 등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대회에는 센터진까지 줄줄이 빠지다가 전력 누수가 심했음에도 정상에 올라 특유의 강한 조직력을 재확인했다.

레프트 곽승석이 후위 수비 진영을 탄탄히 정비한 가운데 주포 신영수가 25득점을 터뜨리는 괴력을 발휘하며 공 수의 중심 역할을 했다.

프로배구 컵대회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 선수들 /연합뉴스

우리카드도 이번 대회를 앞두고 센터 신영석, 레프트 한준찬 등이 입대한 탓에 전력 공백이 큰 상황에서 '잇몸'들이 제 역할을 해 가며 결승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지만 창단 첫 우승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앞서 열린 여자부 결승전에서는 현대건설이 8년 만에 우승 컵을 들어올렸다. 이날 현대건설은 주포 황연주의 맹활약을 앞세워 GS칼텍스를 3-1(25-20 22-25 29-27 25-23)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명가부활을 알린 현대건설이 컵대회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6년 첫 대회 챔피언에 오른 이후 8년 만이다. 2009년과 지난해 컵대회에서 준우승한 현대건설은 아쉬움을 털진 것은 물론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3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아픔까지 씻어 새 시즌 기대를 부풀렸다.

/정성훈기자 [illegible]

프로배구 전적 27일

현대건설	3	1	GS칼텍스
대한항공	3	0	우리카드

인천AG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8일 발표

인천 아시안게임에 나설 야구 대표팀의 면면이 공개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는 28일 오후 2시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기술위원회를 열고 최종 엔트리 24명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팀 사령탑 류중일(사진) 삼성 감독과 김인식 기술위원장, 김병일·김재박·이순철 자문석 기술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술위원회는 지난 14일 프로 선수를 대상으로 한 2차 예비 엔트리 37명을 발표했다. 이 중 23명이 대표팀에 최종 승선하고 KBA가 추천한 아마 야구 선수 한 명이 엔트리 한 자리를 채운다.

류중일 감독은 "18~19명은 이견 없이 대표팀에 선발될 것"이라며 "나머지 4~5자리는 기술위원회의 긴 논의를 거쳐야 확정할 수 있다.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7일

■잠실

롯데	000	300	000	01	4
LG	100	200	000	00	3

[illegible]

■대전

KIA	372	010	121	17
한화	005	000	000	5

[illegible]

■문학

넥센	303	040	000	10
SK	300	100	200	6

[illegible]

■포항

NC	000	010	000	1
삼성	010	000	20X	3

[illegible]